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74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루카 23,35-43)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루카 23,35-43

우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러 상황 속에서 '선택'이라는 중요한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작은 일상에서의 습관도, 처음 맞닥처 들이는 낯선 상황에서도 결국 선택이라는 전환점에서 결정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종종 이러한 선택이란 그 순간 자신의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의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군중들, 군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양 옆에 함께 매달려 있는 두 명의 죄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며 사랑을 맹세하였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를 않습니다. 배신감과 외로움, 예수님의 가슴에 조용히 눈물이 가득히 올라 올 때, 한 명의 죄수가 말합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결국 왼편에 있던 죄수는 고통에 못 이겨 아픔의 원망을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하지만 그 맞은편에 있던 죄수는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최후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 앞에 내 자신의 모두를 내어 놓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만큼 기대도 하고 그 만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라는 형틀에 무능력하게 무릎을 꿇는 스승의 모습에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웃음, 눈물, 그리고 사랑까지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슴에 두려움이 가득해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곁에는 일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두 명의 죄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죄수는 각각 자신의 선택대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신앙 안에서의 '선택'이란 결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 죄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자신의 고통 안에서도 미움이 없이, 한 죄수의 마음을 위안하며 동행을 약속해 주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주변에도 신앙인들에게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죄수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택이란 분명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 영혼의 구원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나는 내 안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수원교구 11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에제키엘서의 간추린 소개”

5분 신앙상식

예언자의 활동 시기

바빌론 유배 기간 중인 기원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선포 내용

에제키엘은 하느님의 초월성과 자유성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질타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들의 죄를 뉘우치게 하며, 평화와 정의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참예언자의 의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그는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민족이 통일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에제키엘서의 구성

1. 예루살렘 함락 이전
 - (1) 환시와 소명: 1-3장
 - (2)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 4-24장
2. 이민족에 관한 예언: 25-32장
3. 예루살렘 함락 이후
 - (1) 구원 예고: 33-39장
 - (2) 새 예루살렘: 40-48장

공지사항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보는 달입니다. 특별히 평일미사를 자주 봉헌하여 위령의 의미를 실천합시다.
- 차분한 마음으로 대림시기를 준비합시다.

다음 달 성경말씀

마태 1,18-24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느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셨습니까? 그 분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느꼈던 일들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소공동체가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침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기도하녀...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 모-여 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알렐루야

중-기 하고 봉사하자 세상 모두에게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